

문화특가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마음을 알아줘' 운영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창우)는 다문화가족의 이중문화로 인한 갈등 해소 및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다문화가족 4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내 마음을 알아줘'를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 간 번산리조트에서 진행했다.

이날 '내 마음을 알아줘'는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이기적인 행동과 자녀양육의 의견차이로 인해 일어난다는 가정 아래 이런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집단상담으로 진행했다.

서로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존중하기, 대화하기, 스킨십 하기, 책임과 헌신의 마음 갖기 등 지혜롭게 부부의 갈등 해결 방법이 제시됐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법과 부부의 성에 대한 내용도 나와 부부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교육이 됐다.

첫날은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과 부모·자녀가 함께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미니아트 만들기, 둘째 날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아침식사와 남편을 위한 아내 나라 음식만들기가 진행돼 부부와 자녀 등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이 됐다.

결혼 이후 여성 고모씨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으며 옆에서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진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부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재해위험 수목 제거

정읍시가 주택 주변 재해위험 수목 제거에 나섰다.

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복되는 수목에 따른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모정 주변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총 449본을 제거했고 하반기에는 11월까지 모두 412본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 추진 전 시민들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해 피해 우려되는 시민들이 자제적으로 제거해야 하지만 노령화와 많은 경비 소요로 자체 제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목 제거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 수목제거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에는 280개소 956본을, 2015년에는 353개소 1천299본을 제거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정 확대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저출산 보완대책 일환으로 지역 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전국각기 월 평균소득 15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모든 계층에게 차등 지원된다.

이와 관련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초과하는 가정은 인공수정 20만원 3회, 신선배아 100만원 3회, 동결배아 30만원 3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인 가구 월평균소득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시술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해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래만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난임부부들의 부담이 줄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장산 단풍구경도 KTX로

KTX 하행 551호 열차 정읍역 정차 운행... 수도권 관광객 정읍방문 편의 등 기대

KTX 하행 551호 열차가 지난 7월 22일부터 정읍역에서 정차, 운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호남선 KTX 개통과 함께 익산과 광주 송정역에서만 정차하고 정읍역을 통과해 운행되었던 KTX 하행 551호 열차는 7월 22일 자료 행선역에서 출발(07:40)하여 용산역(08:15)을 경유, 정읍역(09:48)에서 정차하고 있다.

KTX 열차의 경우 KTX-1(20량)과 KTX-산천(10량)으로 분류되는데, KTX-1인 하행 551호 열차는 호남선 KTX 개통(2015. 4. 2) 이전에 정읍역에 정차해 내장산을 포함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통 이후에는 정읍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과 운행함에 따라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개통

이전 대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용객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코레일 본사(대전광역시) 및 국토교통부(세종시)를 방문하여 하행 551호 관광열차 환원을 적극 요청했다.

또 정읍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정읍역에서도 코레일 본사에 관광객 수요가 많은 KTX 551호 열차의 정읍역 정차를 별도로 요청한 바 있다.

시와 정읍역 관계자는 "이러한 발 빠르게 전락적인 대응으로 관광열차 환원을 관철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KTX 하행 551호

열차 개통으로 내장산은 물론 서남권 주요 관광지를 찾는 수도권 관광객들의 방문 편의가 한층 개선됐다"며 "정읍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정읍역 이용객 증가로 삼골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읍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KTX 하행 551호 열차 정읍역 정차 이외에도, 코레일 본부(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정읍역을 통과하는 KTX의 추가정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11월 개통 예정인 SRT 운행사(주)SR(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사를 방문하여 보다 많은 고속열차가 정읍역을 경유 운행할 것을 건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 관광객 맞이 준비 '분주'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관광객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시는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수목 전지작업과 함께 도로변 풀베기, 꽃박스 설치 등의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15일까지를 '내장산 녹색환경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대수목 전지작업과 내장산 생태공원과 워터파크 도시 숲 풀베기 작업은 물론 국도호선 임체 교차로와 문화관광 교통신에 꽃박스 24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지난 6일 교통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 "교통안전마을 조성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

김제시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지난 6일 교통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교통안전에 대한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

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김제시 월성동 성리마을을 교통안전마을로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교통안전종합 점검 및 개

선을 위한 대책안을 제시하고 김제시는 대책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지역민의 인적·물적 재산을 보호하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 선정

부위원장에 이한수 의원

부안군의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병래 의원, 부위원장에 이한수 의원을 선임했다.

부안군의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던 방식을 바꿔 이번 회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래 의원이 예산의 연속성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처리를 위해 2017년 6월까지 1년 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등 국도비사업의 준비부담금에 64억 원, 부안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줄포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 등 자체 사업에 65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정은 지난 7월에 기획감사실(읍면포함),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10일에 친환경축산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미래창조경제과, 재무과 11일에 새만금국제협력과,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2일에 민원소통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

/부안=이옥수 기자

공덕파출소, 농산물 절도예방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 공덕파출소(소장 이정주)에서는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산물 절도예방 특별 기간으로 설정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덕파출소는 우선 공덕면에 있는 34개소의 농산물 보관창고와 인삼밭 등 특용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기존에 설치된 신고위차번호판을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함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어 순찰선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덕면 소재 29개 동상대를 모두 정비하였고 공덕 농협에서 보급해준 적외선 경보기 25개를 개인 참고 등 순찰선이 미치지 않는 취약장소에 설치하여 절도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노래교실, 지평선아카데미 식전공연

400명 청중에 큰 '호응'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회장 최연옥) 회원들은 지난 8일 제483회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에 앞서 식전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서 회원들은 그동안 노래교실을 통해 열심히 준비해온 진시몬의 보야 같은 친구 외 2곡을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로 펼쳐내어 지하대강당을 가득메운 400여명의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공연을 마친 회원들은 이번 공연에 협조해준 김제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백제 미륵이 김제를 살린다」를 주제로 한 전

북대학교 이춘구 교수님의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을 진지한 태도로 수강하였다.

공연에 함께한 회원들은 한결같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공연이 아주 설레고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노래교실을 통해 우리가 받은 위로와 기쁨을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주민센터는 이날 공연을 펼친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수지침 프로그램" 등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누에 활용 그라주 시제품 품평회

부안군청, 올해안에 본격 출시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지난 7일 부안군청에서 혈당 강하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증강하는 누에를 이용한 그라주 시제품 품평회를 주류업체 대표와 실무자, 농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부안군은 그동안 오디를 이용한 뽕주, 뽕 와인, 뽕 막걸리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기능성을 뛰어난 누에를 이용한 대표 주류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그라주를 개발·출시하게 됐다.

그라주는 지난해 5월 22일 특허청에 상표 획득을 했고 올해 농업기술센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헤스와 공동으로 증류주, 탁주, 약주 등 3종의 주류 개발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라주에는 혈당 강하 물질

인 디옥시노지리마이신(1-Doxyojimycin)과 필수아미노산인 아르가닌(Arginin)이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입증됐다.

이날 부안군은 품평회가 끝난 후 NH농협 부안군지부 주자장에서 군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라주 시제품을 제2회 전국 우수시장 상품페어 TOP 10에 선정된 참청은고기의 뽕떡 갈비 시식회도 함께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품평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제품을 보완하고 주류생산업체를 선정해 올해 안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생애 최고의 술인 그라주를 부안군의 대표 주류로 선포해 상품으로 출시 전까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 후원협약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과 선수단 지원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 든 든한 후원을 얻었다.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과 정읍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준영)은 지난 8일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은 선수단에 운동용품과 단풍미인 한우를 지원하며, 단풍미인 씨름단에서는 씨름현역과 각종 씨름대회 출전 시 정읍단풍미인 한우를 홍보하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단풍미인 씨름단에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이라

는 든든한 후원이 생긴 만큼 씨름단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은 지난 1월 29일 창단 후 설날·단오·추석 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급 4품 1회, 한라급 4품 3회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우승, 개인전 2위 2회, 3위 3회 등 상위권에 입상하며 전북도 내 유일 씨름단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